

장수군,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코로나19 방역 강화·의료·교통·생활·민생안정 행정력 집중

장수군은 설 연휴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당직사령을 상환실장으로 99명의 인력이 투입돼 종합상황반, 재난관리대책반, 물가안정대책반, 생활민원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등 6개 반으로 편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장수경찰서와 무진장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갖추고 교통, 생활, 의료, 재난 등의 분야에 만전을 기한다.

2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종합상황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

휴까지 연장된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과 민생안정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의료, 교통, 생활, 재난 상황에 대비해 각 분야별 '2021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장례식장, 전통시장,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분야별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설 연휴간 코로나19를 대비해 감염병 방역대책반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

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또 상수도 비상대책반 및 기동청소반, 교통대책반을 운영해 설 연휴간 군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상수품 32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설 명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건강·행복 담은 ‘장수 복꾸러미’ 전해요”

군, 설 명절 앞두고 독거노인·중장년 1인 가구 등 300가구에 먹거리꾸러미 지원

장수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수복(福)꾸러미 300세트를 지원한다.

2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복꾸러미는 장수에서 생산된 쌀, 계란, 당근, 시래기, 양파 등 친환경농산물 9종과 떡국, 김, 즉석밥 등 17종으로 구성된 2종 세트(10만원 상당)의 먹거리꾸러미다.



장수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장수복(福)꾸러미 300세트를 지원한다.

복꾸러미는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손수 포장에 참여해 이웃들을 향한 건강과 행복을 함께 담았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외롭게 명절을 보내게 될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3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복꾸러미 전달은 각 읍·면 지역사회협의회체 위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유관기관·단체도 따뜻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했다.

한편, 장수군은 2020년부터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나 법적인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

대 가구를 중심으로 복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50가구에 1억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 완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설맞이 장보기 행사 진행

무주군은 2일부터 읍면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장보기는 6일까지 설전과 안성, 무주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악수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다.

2일 설천면 산도봉 정터를 찾은 황인홍 군수와 시장 상인회, 소비자조합

센터 무주군지부 관계자들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상품권 구입처와 카드 및 지류 등의 종류별 사용법 등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애용하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장바구니 두둑하게 채워보시라”며 “상인

여러분도 좋은 물건, 정이 넘치는 흥정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산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군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맥락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논·밭 구분 없이 직불금 확대

무주군, 5126농가 대상

무주군은 올해부터 논비 직불금 대상을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 직불제 통합·개편에 따른 것으로 쌀·밭 구분 없이 통합해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중 1,000㎡ 이상의 논지를 경작하는 5,126농가(3,840ha)다. 무주군은 설 명절 전까지 농가별 지급 정보를 확인 후 ha당 25만원씩 최대 5ha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작년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지원했었다”며 “모든 작물에 대해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직불금이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무주군에서 농가들이 지급받은 직불금 총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해 군·도비 총 98억 6,000만원이다. 올해는 8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5118명 대상

진안군은 2일 2월 중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정 대상자에게 논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면적은 3,893ha이며, 지급대상은 5,118명, 지급액 규모는 10억원이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기존 쌀직불금(변동) 대상자에게만 지급 되던 직불금을 발농업 경작자가

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논·밭 구분 없이 1ha당 동일한 단가 27만원으로 지급된다.

군비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군 논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상한선은 2ha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농촌 인건비 상승 및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이번 지급하는 진안군 소득보전 직불금이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82회 무주군의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의회(의장 박찬주)가 1일 무주군의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군의회는 무주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을 내용으로 한 윤정훈 의원 발의의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편의 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승열 의원 발의의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상정된 안건 3건 중 비가립시설 철거 및 무주시장 장육 증축 관련 2021년도 정기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비부담과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 결여로 부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안은 군 재정부담과 기존 시설 활용방안, 사업위치 등 전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부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기후변화 대응 일환 '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서 폭염,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취약성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후안전망 강화를 위해 2월부터 '쿨루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강해지고 길어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것으로 군은 먼저 마을회관 14개소 지붕에 차열성능을 지닌 페인트를 도색해서 열을 차단할 계획이다.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차열 페인트는 열 발생 및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주원인인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시켜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의 열전달을 막아 준다.

차단효과는 건물내 온도 4~5℃ 저감 및 동절기 보온유지보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연간 15% 냉방비 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농기센터,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약 체결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과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김진성 회장이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양측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비롯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무주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 관련 시책사업, 센터와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에 합의했다.

협의회와 센터는 상호간 업무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